

문학공간의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 권정생을 중심으로 -

강민희*

|| 차례 ||

- I. 문학공간과 스토리텔링의 힘
- II. 권정생의 문학관과 문학공간
- III. 스토리텔링 방안
- IV. 결론

【국문초록】

문학공간의 스토리텔링 방안을 제시하는 일은 텍스트의 변용을 문화적으로 달성하고, 소비자들의 문화향수권을 담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오늘날에는 문학에 기반을 둔 문화콘텐츠로 향유자들의 정신적·물질적 가치를 고양하는 현장을 조성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권정생의 문학공간을 조망하여 스토리텔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알려진 바와 같이 권정생은 “파란만장한 민족의 역사를 응축해서 보여준 그의 삶과 문학은 이 땅에서 가장 폭넓은 공감대를 자아”낼 수 있는 여러 편의 작품을 창작해 “한국 이동문학의 자존심”으로 불려왔다. 또한 안동시 일직면 일대는 작가가 보여준 검소함, 자연과 생명에 대한 애정, 사람들과의 끈끈한 정이 묻어나 대중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다.

한편 스토리텔링 방안을 제안하는 일은 ‘권정생 동화나라’의 공간 구성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문학연구의 실용성을 아우를 수 있다.

주제어 : 권정생,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문학공간, 문화적 의미

* 대구한의대학교 강의전담 조교수

I. 문학공간과 스토리텔링의 힘

문학공간은 작가의 판단에 따라 일정한 변형과 굴절을 거치며 새롭게 창조된다. 작가나 작품에 따라 표상된 공간과 실제 공간(real space)이 동일하거나 상동성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공간을 통해 ‘현실 질서의 미학적 왜곡’이라는 기존의 방법론에 대한 회화화를 시도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 한편 문화산업에서의 문학공간은 비일상적인 체험을 위한 단초로 기능한다. 문학공간은 시각적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와 흥미, 체험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새로이 구현된 문학공간을 이해하고 체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스토리텔링의 대상이 되는 화소(話素)는 텍스트와 향유자 간의 체험을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회로이고,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OSMU)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심 매개이자, 텍스트의 완성도와 향유자의 소구를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이다.²⁾ 화소에 내재된 이야기 가치가 높을수록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산업으로의 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중의 문화콘텐츠 향유와 OSMU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글은 이상의 가능성을 토대로 권정생의 문학공간을 조망하고, 이를

1) 작가 스스로 고현학(modernologie)라고 명명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조선중앙일보》, 1934.8.1.~9.19.)이 대표적인 예다.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보다 도시공간의 순간성이 드러나는 공간의 편린이 강조된다. 최혜실, 『1930년대 도시 소설의 소설공간』, 『현대소설연구』 5,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p.27. 참조.

2) 그동안 이야기와 이야기가치에 대한 논의는 지극히 모호한 수준에서 당위적 요구에 머물러왔다. 이제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요소를 넘어, 기획의 원천소스이자 발굴의 명분이며, 동시에 스토리텔링의 질서를 통제하는 원리와 규범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토대로 화소를 발굴하며, 스토리텔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관련 연구의 양적·질적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³⁾

권정생은 “한국 아동문학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과란만장한 민족의 역사를 응축해서 보여준 그의 삶과 문학은 이 땅에서 가장 폭넓은 공감을 자아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가치가 있다. 또한 실재공간인 조탑동을 아우를 수 있어 지역과 문학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도 할 수 있다.

II. 권정생의 문학관과 문학공간

1. 권정생의 생애와 문학관

권정생은 1937년 9월, 일본 도쿄(東京)의 변두리 시부야(澁谷)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혼마치(本町)의 헨 옷 장수 집 뒷방에 세 들어 살다가 1944년 12월, 도쿄가 폭격을 당하면서 군마 현(群馬縣) 쓰마고이촌(孺戀村)으로 이사했다. 이곳에서 권정생의 가족은 “시뻘건 물이 천장을 타고 방바닥에 흘러 떨어”⁴⁾지는 나가야(長屋)에서 살았다.

거리 청소부였던 아버지는 쓰레기 더미에서 헌책을 가려내어 와서 뒤란 구석에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가 이따금 찾아오는 고물 장수에게 얼마의 돈을 받고 팔았다. <...> 『이솝 이야기』, 『그림 동화집』, 그리고 훗날 알았지만 오

3) 지금까지의 권정생 연구는 주로 생애와 작품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작가의 삶과 문학이 거의 일치하고, 작가 스스로 자신이 경험했던 것만 쓸 수 있다고 한 고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4) 권정생, 「나의 동화 이야기」, 『오물덩이처럼 덩굴면서』, 종로서적, 1986, p.14.

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오가와 미메이의 『빨간 양초와 인어』, 미야자와 겐지의 『달밤의 전봇대』 등등 그때 읽은 동화들은 내 머릿속에 깊숙이 들어 자리 잡았다.⁵⁾

권정생은 가족들이 일터와 학교로 흩어지면 청소부였던 아버지가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온 그림책과 동화책을 읽었다. “곰팡내가 나고 반쪽 찢겨 나가고 불에 타다 남은 것도 있었”지만 이때 읽은 동화책은 작가가 글과 세상을 익히는 교재였다.

권정생 일가는 1946년 해방을 맞아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6·25전쟁과 가난 때문에 흩어져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친다. 게다가 권정생은 19세가 되던 해에 결핵을 앓기 시작해 평생 병고에 시달렸다. 친구들이 병으로 목숨을 잃을 때부터 그의 “병세 역시 극도로 악화하여 있었다. 폐결핵에서 심장, 방광, 결핵으로 전신결핵이 되었”⁶⁾다.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집을 나와 거지 생활을 하다가, 1957년에 부고환결핵으로 생사를 헤매며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후 1967년부터 안동시 일직면 조탑동에 정착해 일직교회의 문간방에서 교회 종지기로 살았고, 1983년 가을 빌뱅이 언덕 아래 오두막을 지은 후에는 그곳에서 집필활동을 계속했으며, 2007년 5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작가는 일생을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았다. 그러나 장례식만큼은 이웃들이 “안동이 생긴 이래로 정생이 초상 때처럼 사람들이 많이 온 것도 처음”⁷⁾이라고 할 정도였다. 또, 2주기를 즈음하여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이 설립인가를 받아 2009년 3월 19일에 출범했고, 2014년에 건립된 ‘권정생

5) 권정생, 앞의 글, pp.14-15.

6) 권정생, 앞의 책, p.28.

7) 조윌레·정병규, 『‘정생이’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지』, 원종찬 편, 『권정생의 삶과 문학』, 창비, 2015, p.355.

동화나라'에는 유품과 육필 원고·작품집 등이 전시돼 있다. 또한 2007년 이후 주기마다 다양한 추모행사가 지속되고 있다.⁸⁾

권정생의 생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열 살 안팎의 나이에 두 번의 전쟁을 겪었”⁹⁾고, 평생 병마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작가의 인생은 가난과 병마를 대상으로 한 응전이었고, 그의 동화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자기만의 빛깔로 세상을 밝”¹⁰⁾힌 것이다.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작가의 인생은 작가정신으로 응축되어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작가는 『강아지똥』(1969)이 월간 『기독교교육』의 제1회 기독교아동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문단활동을 시작했다.¹¹⁾ 이후 『아기양의 그림자 딸랑이』(1971)가 《매일신문》 신춘문예의 가작에, 『무명저고리와 엄마』(1973)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당선작에 선정됐다. 이로부터 2007년 만 70세의 일기로 타계하기까지 방대한 분량의 작품을 남겼다.¹²⁾

8) 일직교회의 이창식 목사의 발인 예배를 시작으로 10시에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5층 전탑 경내에서 ‘이동문학가 故 권정생 선생 민족문학인장례위원회’의 주최로 장례식이 이루어졌다. 이날을 기점으로 권정생의 작품집이 재판되었고, 기존 작품을 저본으로 하는 단행본도 출판되었다. 『한티재 하늘』의 문학공간답사와 북한에 사과나무 심기,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책 보내기 사업 등이 그것이다. 어린이 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9월부터는 권정생의 모교인 일직초등학교에 전교생 우유급식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 양연주, 『권정생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2010, pp.24-26.

9) 권정생, 『열여섯 살의 겨울』, 『빌뱅이 언덕』, 창비, 2012, p.49.

10) 위의 글, p.18.

11) 1974년 세종문화사에서 발행된 동화집 『강아지똥』의 머리말에는 “거지가 글을 썼다”며 “참다못해 터뜨린 울음소리가 글이 되었으니 참다운 글이 못됩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오덕은 발문을 통해 이 울음소리가 한국 아동문학계에 “하나의 이변이요, 충격”으로 다가왔음을 밝힌다. 권정생, 『강아지똥』, 세종문화사, 1974. 머리말; 이오덕, 『눈물과 피로 쓴 동화』, 권정생, 같은 책, 발문 참조.

12) 권정생은 중·단편동화 140여 편, 장편동화 5편, 소년소설 4편, 동시 110여 편과 번역시 2편을 썼다. 옛이야기를 재창작한 ‘다시 쓰는 옛이야기’는 150여 편에 달한다. 기고

그의 동화에는 이오덕이 지적한 것처럼 “천사는 물론이요, 옷, 밥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는 행복한 아이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비극적인 결말이나 대상에 대한 냉소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슬픔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여 사랑과 희망을 환기한다. 이러한 전개는 “지옥의 밑바닥 같은 암흑 세계”¹³⁾가 다시 밝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정생은 자신의 동화가 한국인이자라면 누구나 체험한 고난에서 비롯된 슬픈 이야기임을 고백한다.

나의 동화는 슬프다. 그러나 절대 절망적인 것은 없다. 어른들에게도 읽히게 된 것은 아마 한국인이면 누구나 체험한 고난을 주제로 썼기 때문일 것이다. <...> 내가 쓰는 동화는 차라리 그냥 “이야기”라 했으면 싶다. 서러운 사람에겐 남이 들려주는 서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 위안이 되고 그것이 조그만 희망으로까지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권정생의 작품은 독자의 공감을 유발하는 슬픔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랑과 희망이 함께 자리한다. “삶의 십자가를 지고 엄청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작가의 “눈물과 피로 쓴 동화”는 “안일한 공상이나 목가적 향수를 그리는 동화에 비해 참된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글이자, ‘우리 아동문학에서 특이한 자리를 차지하는 귀한 재산’¹⁵⁾으로 오늘날에도 그 가치가 또렷또렷하다.

문 『우리들의 하느님』을 비롯해 문예지에 발표한 평론 2편, 서평과 인물이야기 각 1편, 서문 11편 등을 남겼다. 권정생의 창작활동은 문학에의 열정과 성취, 사회문제에 깊이 천착한 작가의식을 보여준다.

13) 이오덕, 앞의 글.

14) 권정생, 『오물덩이처럼 덩굴면서』, 종로서적, 1986, pp.155-156.

15) 이원수, 『눈물과 피로 쓴 동화』, 권정생, 『강아지똥』, 세종문화사, 1974, 발문 참조.

2. 권정생의 문학공간 분석

문학공간은 문학의 생산과 소비가 상호 관계하는 접점이다. 작품을 생산하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체험의 내면화와 재구성¹⁾이 이루어지는 매개이고, 독자에게는 해석과 재해석을 통해 유추된 경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권정생의 문학공간 역시 작가와 독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문화적 기억공간’으로 작용하는 한편, 작품을 매개로 기억을 보존하고, 재생산하고 있다.

1) 진실과 재생, 자정과 화합의 공간

권정생의 작품에 표상된 공간은 <표 1>과 같이 나눌 수 있다.

<표 1> 권정생 문학공간의 의미와 해당 작품(가나다 순)

공간특성	작품
진실과 재생	『강아지똥』, 『까치 울던 날』, 『눈길』, 『똥배가 보고 온 달나라』, 『사과나무발 달님』, 『새끼까치와 진달래꽃』, 『어시장 이야기』, 『장대 끝에서 웃는 아이』, 『찬옥이와 대장의 크리스마스』 등
자정과 화합	『금복이네 자두나무』, 『둥근이와 아기 소나무들』, 『들국화 고갯길』,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만구 아저씨가 잃어버렸던 돈지갑』, 『떡구령이 기차』, 『몽실언니』, 『산토끼』, 『새벽 종소리』, 『소』, 『승규와 만규 형제』, 『앵두가 빨강계 익을 무렵』, 『어린 양』, 『오소리네 집 꽃밭』, 『왜가리 식구들의 슬픈 이야기』, 『옷들 감나무 집 할아버지』, 『하느님의 눈물』 등

권정생에게 도시는 냉엄한 사회적 음지지만, 이곳에서 주인공들은 좌절하기보다 각자의 계기를 통해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즉, 내면의 구원을 얻을 기회를 진실로 마련하고 부활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다. 이처럼 권정생의 작품에 묘사된 도시와 사회적 음지는 단순히 비극이 응축된 곳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리이자 재생을 꿈꿀 수 있는

곳이다.

한편 농촌은 전쟁과 도시, 사회적 음지의 대안으로 작가의 이상향에 부합된다. 두드러지는 점은 작품에 묘사된 농촌은 도시화와 산업화 이전의 완벽한 자연,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형태라는 것이다. 더러는 작가가 체험한 전쟁이 투영되면서 이전의 모습이 훼손되지만, 전통적인 농촌에 내재된 자정과 화합의 힘을 통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강화한다.

2) 작가와 작품이 실재하는 공간

작가와 관련된 실제공간은 ‘권정생 선생 살던 집(이하 흙집)’과 ‘일직교회’, ‘빌뱅이 언덕’, ‘권정생 동화나라’를 들 수 있다. 흙집과 일직교회, 빌뱅이 언덕은 권정생이 종지기 생활을 시작한 30세부터 세상을 뜬 70세까지 살았던 곳이자, 작품이 배태되고 창작된 곳이다. 특히 흙집은 조탑동에서 가장 후미지고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낡고 오래 된데다 슬레이트 몇 장만이 벽에 덧대어져 있어 추위나 더위를 견디기 어려웠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흙집과 먼한 빌뱅이 언덕은 작가의 유해가 뿌려진 곳이다.



〈그림 1〉 권정생 선생 살던 집



〈그림 2〉 일직교회와 종탑

집에서 나와 벽화가 그려진 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으면 작가가 중지기 생활을 했던 일직교회가 나온다. 종탑 옆에 세워진 팻말에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이가 듣고, 별례며 길가에 구르는 돌맹이 들으라고” 종을 친다는 문장이 적혀 있어 작가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교회에서는 권정생의 삶과 문학정신을 그린 『동금동산』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망호리에 자리한 ‘권정생 동화나라’도 본 유형에 해당한다.



〈그림 3〉 권정생 동화나라 1



〈그림 4〉 권정생 동화나라 2

폐교를 보수하여 2014년 4월 29일에 개관한 ‘권정생 동화나라’는 조탑동에서 1km 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1층에는 작가의 유품을 모아둔 전시실,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도서관, 체험관, 구연연구소, 수장고 등이 마련되어 있다. 2층에는 회의실과 작가에게 대여할 수 있는 창작공간과 숙소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폐교에 다시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 권 선생의 뜻을 전하는 교육, 전시, 공연의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부실한 시공과 방만한 운영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설계 당시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해당 문학관이 비판받는 요인 중 하나다. 권정생의 문학관과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생태체험장과 연못이 지어지지 못했고, 작가의 문학인

생을 응축해 놓은 전시관은 협소하고 진열품의 수준이 높지 않아 문학과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한다. 수장고는 이중창 잠금장치 외에 별다른 보안설비가 없어 도난의 위험마저 안고 있다.

3) 작품과 실재를 아우르는 공간

권정생의 문학공간 중에는 실재공간이 작품에 표상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은 『한티재 하늘』¹⁶⁾과 『몽실언니』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몽실언니』는 산악역에서 살강마을을 주요무대로 하는데, 이는 ‘권정생 동화나라’ 등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작품에 나타나는 공간을 간단히 살펴보자.

태평양전쟁 중에 태어난 몽실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봄에 귀국하여 “슬픈 운명이 기다리는”¹⁷⁾ 살강마을¹⁸⁾에 정착하지만, 일 년을 채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이때 몽실은 개가를 결심한 밀양댁의 손에 이끌려 산악역에서 기차를 타고, 단촌을 지나 “살던 곳의 기차정거장보다 더 작고, 더 보잘것없는 정거장”인 의성역에서 새아버지 김 씨를 만난다. 이 곳에서 몽실은 땃골마을에서 새아버지의 폭력으로 절름발이가 된다. 이후 몽실은 고모를 따라 노루실¹⁹⁾로 이동한다. 이곳은 “비스듬히 비탈진 산자락에 모여”²⁰⁾있는 마을로, 이제는 ‘권정생 동화나라’로 재탄생한 일직남부초등학교

16) 한티재는 안동에서 대구로 향하는 고개다. 권정생의 장편소설 『한티재 하늘』은 1895년에서 1937년까지 일직면 평판, 명진, 광연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제국주의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한편, 가난과 속박 속에서도 끈끈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17) 권정생, 『몽실언니』, 창비, 1984; 개정 2판, 2000, p.12.

18) 살강마을은 경북 의성시 단촌면 구계리에 자리한 마을이다. 오래전에 소개(疏開)되어 인적이 끊겼지만, 여전히 ‘살가리’, ‘사갈마을’, ‘살갈마을’ 등으로 불리고 있다.

19) 일직남부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비내미, 왼쪽은 노루실로 이어진다. 노루실의 지명은 ‘노래골’인데 발음에 따라 ‘노루골’로도 통한다.

교가 있던 골짜기이다.

권정생에게 땃골마을은 1946년 봄에 일본에서 돌아와 ‘일본 거지’로 1년 반을 살았다. 이때 작가는 외삼촌 안반석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화목국민학교²¹⁾에 다녔다. 전쟁이 끝난 뒤 먹고 살기 막막해진 몽실이 어린 난남을 업고 밥을 얻기 위해 장터마을로 향하던 ‘기차 정거장이 있는 마을’이 작가에게는 배움의 공간이었고, 이제는 그의 문학정신이 응축된 ‘권정생 동화 나라’로 변모한 것이다.

Ⅲ. 스토리텔링 방안

문학공간을 토대로 스토리텔링을 진행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 무엇인가?

첫째, 경제적 이윤보다 지역정체성 확보에 초점을 뒀야 한다. 스토리텔링 기획과 창작이 공동체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와 비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당장의 수익보다 지역과 지역민에 내재된 가능성과 가치를 도출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스토리텔링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학공간에 기초한 스토리텔링을 온전히 활용하고자 한다면 브랜드자원을 최대한 살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작용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기존 콘텐츠에 대한 차별성이 요구된다. 다수의 선택을 받은 유형

20) 권정생, 위의 책, p.52.

21) 이 초등학교에서 이오덕은 교편을 잡았다. 때문에 경북에서 아동문학을 주제로 하는 문학기행을 기획할 때 거쳐야 할 곳이 화목초등학교다.

에는 부합하는 이유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역의 개성이나 정체성보다 대중성만을 쫓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결과물이 기존의 것과 다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을 인식할 때 스토리텔링이 공동체에서 그 기능을 다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학공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권정생의 문학공간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1. ‘권정생 동화나라’의 라비키움화

‘권정생 동화나라’는 2014년 개관 이후 부실공사와 콘텐츠 부족 등이 지적돼 왔다. 알려진 바와 같이 문학관은 작가와 작품을 선양하는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다. 특히 별도의 문화시설이 부재한 해당지역에 마련된 문학관이 의미를 확보하지 못하고, 방문자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없다면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별도의 시설물을 세우고자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작가정신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람객이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에 의해 결정되고 전시품들이 어떤 방법으로 보여지는지”²²⁾를 지속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라비키움(Larchiveum)²³⁾을 공간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라키비움은 지식 정보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창작과 재가공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가

22) 김용승, 「박물관 전시공간구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11호, 대한건축학회, 1995, p.86

23) 메건 윈젯(Megan Winget)이 제안한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을 합한 신조어이다. 일직면에는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이 없어 ‘권정생 동화나라’가 라비키움으로 기능한다면 방문객 확충을 유도하고, 지역의 문화향수권 확보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영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복합 기능을 구현한 라비키움의 공간 기능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2권 2호, 한국문화산업학회, 2012, p.58. 참조.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권정생 동화나라’의 공간 구성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 구성의 개선방안은 <표 2>과 같다.

〈표 2〉 권정생 동화나라의 공간 구성(안)

위치	명칭	내용
1층	권정생 도서관	- 수장공간과 도서열람 공간 마련 - 권정생 및 관련 도서 비치
	아동문학 아카이브	- 보존공간과 활용공간으로 세분 - 전시 및 교육을 통한 문학 향유기회 제공
2층	문학연구실	- 교육 및 연구공간 - 관련 자료 확보 및 네트워크 기반의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인창작실	- 문인들의 거주 및 집필공간 -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 - 국제 레지던트 프로그램 운영 - 융복합 문화예술 협력 프로그램 운영
	문학카페	- 휴게시설 - 문학 콘서트 등의 이벤트 개최 - 권정생의 문학을 소재로 한 2차 창작물 전시 및 공연
옥외	포토존	- 방문객들의 사진 촬영을 위한 공간 - 설치물을 비롯한 환경 정리 실시
	당산나무	- 동화나라의 수호신이면서 방문객의 휴식공간으로 기능 - ‘툇제비 만나기’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생태공원	- 자연을 보존하고 배우는 공간 - 일직면의 종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생물의 서식처 확보 - 공원의 사계를 권정생의 문학작품과 연계하여 제공
	야외공연장	- 자연과 하나되어 권정생의 문학작품을 즐기는 공간 - 동극(童劇) <꿇죽 할머니> 공연 - 백일장 및 문학제 개최

가장 먼저 1층에 마련된 ‘권정생 도서관’과 ‘아동문학 아카이브’가 내실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에는 권정생의 작품과 그가 영향을 받은 작품, 생전에 친분이 있었던 아동문학가들의 작품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은 오래된 전집류가 대부분인 데다, 권정생의 책이 마

련되어 있지 않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실되기 쉬운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수장실과 권정생의 문학작품 열람이 가능한 도서열람공간이 필요하다. 수장실은 도서는 물론 연속간행물과 학술논문, 시청각 자료 및 기타자료를 세분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열람공간에는 권정생의 작품 전편을 비치하고 작가의 문학과 생애에 영향을 미친 도서를 선정하고 확보하는 과정이 요구된다.²⁴⁾ 통제와 안내, 대출을 담당할 수 있는 데스크가 필요고, 희귀본의 복각본 제작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내실을 갖춘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서기증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시스템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권정생은 물론 국내 외 이동문학을 집적하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문학 아카이브’는 보존공간과 활용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보존공간은 간행물·귀중문고·유류품 등의 수장고와 시청각 기록물 수장고로 구분될 수 있다. 활용공간은 전시·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전시품제작실·전시 준비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권정생이 활동했던 아동문학가협회, 아동문인협회 등의 문학단체와 작품을 주제별로 결합해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

2층은 ‘문학연구실’, ‘문인창작실’, ‘문학카페’로 왕성한 활동을 개진하고 있는 작가와 연구자, 방문객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정생의 문학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성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24) 권정생의 에세이나 서간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에드문도 데 아마치스, 『쿠오레』(계몽사, 2011), 이현주, 『알 게 뭐야』(상서각, 2008), 권영민 편, 『이상 전집』(태학사, 2013), 이오덕, 『이오덕 동시선집』(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이운복, 『저 하늘에도 슬픔이』(주산하, 2004), 야스모토 스에코, 『니안짱』(산하, 2005), 미야자와 겐지, 『미야자와 겐지 전집』(너머, 2015)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특히 ‘문인창작실’은 문인들이 거주함으로써 공간의 활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가들이 자유롭게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문학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한다. 이를 통해 문학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

옥외에서는 포토존과 당산나무, 생태공원, 야외공연장 등을 통해 생명과 자연을 사랑했던 권정생의 정신을 환기할 수 있다. 특히 야외공연장에서는 평소에 보기 힘든 <팔죽 할머니> 등의 동극(童劇)을 제공하면 방문객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²⁵⁾

‘권정생 동화나라’는 넓고 훼손된 책이 모이는 창고이거나 작가와 작품의 가치를 보여줄 수 없는 죽은 공간 아닌,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식 생산과 문화 향유의 장이 되어야 한다. 특히 별도의 문화공간이 없는 일직면에서 이 문학관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고, 전문적으로 권정생의 작품을 비롯한 아동문학 아카이브가 구축되는 곳이며, 아동문학의 창작, 연구, 교육이 이뤄지는 곳이어야 한다. 그때에 비로소 ‘작가의 정신과 작품을 기억하는 체험의 공간’이자 ‘살아 있는 문학연구의 장(場)’으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2. 스마트투어서비스 기획

조탑동은 작가가 40여 년 동안 살면서 작품을 창작한 곳으로 장소적 의

25) 권정생은 여러 장르에 걸쳐 작품을 창작하였으나, 아동극은 <뭉여 있는 하느님>과 <팔죽 할머니> 단 두 편이다. 전자는 종교적 색채가 짙고 추상적이므로 대중의 호응을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팔죽 할머니>는 전래동화를 극화한 작품으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내재하고 있는데다 이해하기 쉬워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여겨진다. 호랑이를 물리치는 힘을 민간의 믿음 속에 있는 ‘팔죽’이나 단결을 통해 상부상조하는 전통에서 찾는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미가 매우 크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권정생 선생 살던 집’과 일직교회를 직접 둘러보기 위해 해당지역을 방문하지만, 작가의 문학적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작가의 낡은 집에 마련된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주변을 둘러본 후 돌아가는 정도다.

따라서 ‘권정생과 함께 둘러보는 조탑동공동체’라는 콘셉트의 스마트투어가이드²⁶⁾를 마련하여 방문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조탑동의 역사문화 자원을 두루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표 3>와 같다.

<표 3> ‘권정생과 함께 둘러보는 조탑동공동체’ 스마트투어가이드 내용 (안)

명칭	내용
투어맵(tour map)	그래픽, 역사문화지도, 문학지도
투어톡(tour talk)	실시간메시지, 지역민의 구술자료
투어노트(tour note)	LBS 기반 스마트 여행 기록 시스템(스탬프 투어 등)
투어카메라(tour camera)	투어노트 연결 서비스

스마트투어가이드는 추억이 담긴 장소나 자연물 등에 대한 이야기를 구술의 형태로 집적하고, 장소정보를 연결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거나, 초행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담긴 생생한 기억을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매개체가 되어 경제적 성과를

26) NFC, QR과 LBS기반 기술을 접목하여 내외국인 자유여행 관광객에게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맞춤형 관광정보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자간 커뮤니티와 여행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토탈 서비스. 방문객이 텍스트와 이미지는 물론 오디오로 관광지에 대한 소개를 들을 수 있다. GPS를 이용해 주변의 관광지를 알려주고, 근처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관광지 안내가 화면에 나타난다. 관광안내와 마을의 문화·역사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달성할 수 있고, 문학과 지역의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새로운 관광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고유의 전통설화, 이야기 등을 전시·발굴·활용함으로써 마을 전체가 문학마을이나 문화도시로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동체는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관 등을 확인하고, 공동의 문제의식에 접근하여 이를 해결하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민의 공통관심사와 가치관을 확인하고, 공동의 문제의식에 접근하는 일은 소통의 다른 이름이며, 지역의 생동력을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이야기가 부재한 오늘날에 지역과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들의 기억과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소중한 자산으로 이야기 자원을 확보하고 생활 속 이야기판을 복원하는 길이 될 것이다.²⁷⁾

권정생은 조탑동에서 동화를 창작하는 것 외에도 노인들의 편지를 대필하고, 이웃 처녀를 위해 옷을 지었으며, 장애아들을 가르쳤다. 또 마을교회에서 종지기 노릇을 자처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자 했다. 이러한 작가의 모습은 지역민의 기억에 고스란히 기억되어 있으며, 그들의 공유한 시간은 조탑동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자체만으로도 서사적인 흥미와 재미, 감동의 요소를 충분히 갖춘 이야기 자원이기도 하다.

사실 권정생에 대한 지역 차원의 서술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개 설명적 방식으로 서술됐고, 이웃과의 교류가 투영되지 못했다. 이는 권정생의 역동적인 삶을 서술하기에 부족했고, 결국 업적을 중심으로 기술함으로써 서사성을 대폭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지역민들의 구술을 통해 더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개개인의 이야기가 모여 조탑동공동체의

27) 신동훈, 『현대의 여가생활과 이야기의 자리 : 생활현장 속 이야기문화의 회복을 위하여』, 『실천민속학연구』 13, 실천민속학회, 2009.2., p.12.

역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인적네트워크에 기반한 웹툰 기획



〈그림 5〉(왼쪽부터) 전우익,
권정생, 이오덕

다양한 지역의 문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작품과 문학정신을 아우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권정생은 대구 경북은 물론 수도권에 기반을 둔 문인들과의 교류를 꾸준히 이어갔다. 특히 이오덕²⁸⁾과의 교류는 권정생의 생애와 문학에 미친 영향력만큼이나 흥미롭다.

1973년 권정생이 『무명저고리와 엄마』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을 때부터 두 사람의 우정은 시작되었다. 이오덕은 심사위원이었던 이원수가 권정생의 당선소식을 전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오라고 권해 일직교회 문간방을 찾았다.

이후 두 사람은 30년간 여러 통의 편지로 건강과 약값, 연탄값을 함께 걱정했고, 아동문학을 논했으며,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꿈꿨다. 권정생이 가난과 외로움, 병마와 싸우면 이오덕의 격려는 동화를 쓰도록 하는 위안이자 원동력이었다.

권정생은 이오덕의 권유로 한국아동문학가협회의 가입했고, 『슬픈 나막

28) 이오덕은 1925년 경북 청송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열아홉에 경북 부동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해 86년까지 마흔두 해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다. 서른 살에 동시 『진달래』로 등단했다. 그는 봉화 삼동에 거주하면서 끊임없이 권정생의 안부를 살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이오덕·권정생,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이오덕과 권정생의 아름다운 편지』, ㈜양철북 출판사, 2015.

신, 『초가집이 있던 마을』, 『점득이네』, 『몽실언니』 등을 집필했으며, 이 오덕의 주선으로 책을 출판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에 걸쳐 우정과 문학 적 가치를 공유했다. 이오덕이 참된 어린이문학 정신을 강조한 비평가라면, 권정생은 그 정신을 실제 작품으로 보여준 작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은 편지를 엮은 책에 불과했고, 각 작가 연구를 통해 단편적으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두 사람의 우정을 소재로 한 웹툰(Web Toon)을 제안하고자 한다. 웹툰은 스낵컬처(snack culture)의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이야기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융합시켜주는 다중 참여적 미래형 스토리텔링이다.

권정생과 이오덕의 우정을 다룬 웹툰을 제작할 경우 세 가지의 장점을 확보할 수 있다. 첫째, 소재와 매체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접근해야 하는 작품론 및 작가론과 달리, 인물 간의 우정을 다룬 이야기는 누구나 쉽고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다. 또, 두 사람의 문학관과 작품을 제시한다면 문학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웹툰을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경우, ‘권정생 동화나라’의 빈약한 전시물을 확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아울러 가질 수 있다.

둘째, 정신적 가치를 현대 어린이의 감각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재해석할 수 있다. 설교조의 교육은 지루하고 보수적인 인상을 풍기기 쉽다. 그러나 이야기를 통해 권정생과 이오덕의 생애와 문학에 내재한 정신적 가치를 전달한다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현대의 우리가 공유하는 이야기로 인식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포털사이트 및 홈페이지 등에 연재되는 웹툰의 매체적 특성과 함께 SNS를 통해 작가와 독자가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작품의 생동감을 더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권정생과 이오덕의 정신적 가치를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IV. 결론

이 연구는 권정생의 문학공간을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스토리텔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작성되었다.

우선 작가의 문학공간은 작품 안팎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권정생의 삶을 고려할 경우 도쿄 시부아에서 안동시 일직면·의성과 청송 일부 지역을 떠올릴 수 있고, 작품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 ‘권정생 동화나라’를 비롯해 안동·의성·청송·봉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공간에서 다양한 폭력으로 인해 상처 입은 인물들의 서사가 펼쳐진다. 그러나 작가를 비롯한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이웃 간의 끈끈한 정, 자연에 대한 경외를 바탕으로 슬픔과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어 나간다. 따라서 권정생의 삶과 작품의 문학공간은 슬픔을 극복하는 희망과 사랑이라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문학공간을 논의하면서 ‘권정생 동화나라’가 각종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공간성이 가장 큰 조답동에 작가와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별도의 방편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 ‘권정생 동화나라’의 라비키움화, 2) 스마트투어서비스 운영, 3) 인적네트워크에 기반한 웹툰 기획을 제시했다.

권정생의 문학 전반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특히 아직 왕성한 논의가 개진되지 못한 권정생 연구의 지평을 확대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한 사람의 작가를 연구하는 일은 작가 정신의 표출과 그 실천 양상을 깊이 있게 천착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의 정신적 자세, 교육, 교우 관계, 신체적 조건, 친척 관계, 직업, 재산 정도, 애정 관계, 읽은 책, 정치사상, 습관, 취미 심지어는 입맛”²⁹⁾ 등의 ‘작가론적인 상관물’들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더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작품의 예술적·미학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지속적해서 연구할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권정생, 『강아지똥』, 세종문화사, 1974.
 _____, 『몽실언니』, 창비, 1984; 개정 2판, 2000.
 _____, 『오물덩이처럼 덩굴면서』, 종로서적, 1986.

2. 논문 및 단행본

- 양연주, 『권정생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2010.
 김용승, 「박물관 전시공간구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11호, 대한건축학회, 1995. pp.79-86.
 신동훈, 「현대의 여가생활과 이야기의 자리 : 생활현장 속 이야기문화의 회복을 위하여」, 『실천민속학연구』 13, 실천민속학회, 2009.2, pp.5-34
 원종찬 편, 『권정생의 삶과 문학』, 창비, 2015.
 이상섭, 『문학 연구의 방법 : 그 한국적 적용을 위한 개관』, 탐구당, 1972.
 이오덕·권정생,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이오덕과 권정생의 아름다운 편지』, (주)양철북 출판사, 2015.

29) 이상섭, 『문학 연구의 방법 : 그 한국적 적용을 위한 개관』, 탐구당, 1972, p.30.

최영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복합 기능을 구현한 라비키움의 공간 기능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2권 2호, 한국문화산업학회, 2012, pp.53-80.

최혜실, 「1930년대 도시 소설의 소설공간」, 『현대소설연구』 5,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pp.17-42.

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of storytelling using Literary Space
- focused on the Gwonjeongsaeng -

Kang, Min-Hee

To create a way of storytelling with authors, works, and the literary space can have the advantage of transmuting the literature as a cultural industry. In addition, It makes the consumers feel nostalgia for the culture. Especially, nowadays people are highly interested in using the local culture and 'cultural welfare'. So, cultural contents based on the literature receive a great deal of attention. There may be the reason that they make the basis to force up the mental and physical value to the consumer and can be used as resources of the local culture as well.

In this article, we'll look through the life of 'Gwonjeongsaeng', his works, and his literary space. Then, based on this, we find a small unit to make the story and present the storytelling methods.

Gwonjeongsaeng is called "the pride of Korean juvenile literature." His life and literary work gain the empathy from many people because they show "our rocky history", therefore can be highly evaluated as a subject of study. And the literary space around the area of Andong Iljikmyeon also has a high value as a use of storytelling. The thrift over whole his life, his love about nature and life, his deep affection for people can be also possibly used as storytelling. And the storytelling created from his life could be used as a means to increase the utility value of 'Gwonjeongsaeng fairyland', established in 2014.

Key Word : Gwonjeongsaeng, Storytelling, Cultural contents, Literary Space,
Cultural meaning

강민희

소속: 대구한의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의전담 조교수

전자우편: kangminhee@dhu.ac.kr

이 논문은 2015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5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